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 석	2133-5530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	2133-5534
담 당 자	이승진	2133-5558
관련 홈페이지	seoul.s2b.kr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공공기관 연결 '온라인 공공마켓 오픈·연조 구매 목표'

- 시·구, 투출기관 등 7천여 개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제품 손쉽게 구매하도록 21일 오픈
-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새 판로 지원... 소상공인 제품 공공구매 연 2천→1조 확대 목표
- 소상공인 누구나 판매자 등록·상담센터 개설, 찾아가는 컨설턴트 50명 배치해 지원
- 공공기관은 지역별·인증별 업체검색으로 간편 구매·사회복지시설은 컨설턴트 별도 운영

- 서울시가 소상공인 제품을 시·자치구·투출기관 등 공공기관과 보조금 집행처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온라인쇼핑몰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seoul.s2b.kr)’을 21일(월) 오픈한다.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전용 마켓이다.
-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잠재적인 소비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사·출연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7천여 개가 넘는 시 공공기관이다.

- 이들 기관의 한 해 평균 공공구매 금액은 총 9조 원. 이 가운데 ‘소액구매’(2천만 원 이하)는 연 1조3천억 원 정도다. 문구·사무 용품부터 컴퓨터 등 전자기기, 가구, 청소용역, 공사까지 총 1만2천여 종의 제품·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다.
- 서울시를 비롯해 7천여 개 공공기관은 현재도 서울시내 공공기관은 전체 소액구매 중 연 2천억 원 이상을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공공마켓’ 오픈을 계기로 소상공인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다.
-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공공구매라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실질적인 매출을 확대하고, 제품·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공공기관은 전용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구매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시는 판매자(소상공인)와 구매자(공공기관) 각각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서비스도 가동한다.
 - 거래에 필요한 행정서식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 생성되어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간소화 시켰다.

<소상공인 누구나 판매자 등록 가능·찾아기는 컨설턴트 50명 배치해 입점·판매 지원>

- 우선, 입점~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현장 컨설턴트 상담센터(☎02-3429-3175)’를 개소하고, 50인의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했다.

-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업체 등록을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류준비와 신청절차, 상품등록, 운영방법도 꼼꼼하게 알려준다.

- 마켓에 상품을 등록한 후에는 거래요청~납품~대금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 공공기관에서 거래를 요청하면 먼저 판매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고, 문자를 받은 판매자는 관리자페이지에 들어가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진행단계에 따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관리자 페이지 내에 자동 생성돼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완성된다. 필요시 즉시 기관에 발송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은 지역별·인증별 업체검색으로 간편구매·6천여 사회복지시설 방문상담>

- 공공기관들은 자치구별 판매자 검색기능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업체와 제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른 배송이나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서비스 구매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상품 가격비교도 클릭 한번으로 가능하며, 최근 1년간 실제 거래가격도 확인 할 수 있다.

- 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제품 등 판매자별 인증 사항도 검색이 가능해 기관별 구매실적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공공마켓’에서 구매한 건에 대해선 분야별 구매 실적 등을 집계해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시는 7천여 개 공공기관 중 6천여 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필요한 제품을 알려주고 적합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연결해주는 ‘컨설턴트’ 30명을 별도로 운영한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시장 분석과 쇼핑몰 효과성을 검토했다. 올해 6월에는 교육기관 전용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 S2B’를 10년 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MOU를 통해 ‘서울시’는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참여와 상호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연간 8,200억 원 80만 건의 거래실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을 서울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관련 문의처〉

- ◆ 소상공인 분야 : 02-3429-3175(소상공인 현장컨설턴트 상담센터)
- ◆ 수요기관 분야 : 02-2191-3708
- ◆ 기술문의 : 1566-3337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현재 연간 2~3천억 원 수준인 소상공인 대상 공공구매를 1조 원까지 늘리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기관부터 소상공인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홈페이지 메인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5호
지정정보처리장치 S2B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시스템 이용안내

☰ 견적정보 카테고리

- 가구/소품
- 컴퓨터/전산용품
- 전자제품/사무기기
- 청소/보건/위생/생활
- 산업안전시설용품
- 도시/교재
- 중기간경쟁제품
- 학습교구/기자재
- 문구사무용품
- 행사/판촉용품
- 용역/서비스
- 금식(주방)
- 식품

주무관님, 이거 찾으세요?

찾으시는 물품이나 용역분야를 검색해보세요.

수요기관

- 진행중 계약
- 견적요청

공급업체

- 계약관리

고객센터

소상공인 전용 : 02-3429-3175
수요기관 전용 : 02-2191-3708
시스템 오류 : 1577-3309

시스템 이용안내